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수용자의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

허 윤 철** · 임 영 호***

국 | 문 | 요 | 약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주목 받고 있다. 이 연구는 개인수준 요인과 미디어 요인이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또한 개인수준 요인 중 외국인 접촉 경험이 미디어 요인과 위험지각의 관계를 중재하는지 탐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사회적 수준의 위험지각과 개인적 수준의 위험지각으로 구분하여 미디어의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수준 요인 중에는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1). 또한 외국인 범죄 관련 미디어 접촉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담론형 미디어의 접촉은 수용자들의 사회 수준의 위험지각에서 더 큰 영향을 미쳤다(연구문제2). 마지막으로 개인의 외국인 접촉 경험의 중재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접촉 경험이 미디어 접촉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특별히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연구문제3).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적·정책적 함의를 토론했다.

❖ 주제어: 외국인 범죄, 범죄 두려움, 문화계발효과, 비개인적 영향, 다문화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8A01054492)

**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수료, ych0719@gmail.com, 제1저자

***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yhoim@pusan.ac.kr, 교신저자

I. 문제 제기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5년도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주민수는 174만 명을 넘어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3.4%를 차지한다.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06년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수는 54만 명으로 지난 10년간 외국인주민은 연평균 14.4% 증가하였다. 이는 주민등록인구 증가율 0.6%의 25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의 증가와 함께 한국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다소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2014a: 5)의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증가가 ‘한국 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응답의 비율은 2011년 74.2%이던 것이, 2012년 70.1%, 2013년 67.5%로 점차 하락하였다. 반면 다문화 가정의 증가가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이라는 응답은 2011년 25.8%에서, 2012년 29.9%, 2013년 32.5%로 증가하였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이유로는 실업률 증가와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오영삼·노은영, 2014),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반다문화 담론 확산(강진구, 2012) 등 다양한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 인식의 확산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기도 한다. 최근 아산정책연구원(2014b: 1)의 조사에서는 외국인 이민자가 범죄율을 높인다는 인식이 과반(53.0%)을 넘었다. 또한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임도경과 김창숙(2011)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다. 윤인진과 송영호(2011)의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합법체류 이주노동자 문제를 경제적인 위협으로 느끼지는 않지만, 범죄와 주거 환경 악화 등 사회심리적 측면에서는 보통 이상의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 외국인 범죄로 입을 수 있는 객관적 위협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시각에 가깝다. 따라서 사람들이 외국인 범죄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과 객관적 현실 사이에는 항상 거리가 존재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최영신 외, 2012)에 따르면 외국인에 의한 5대 범죄 발생률이 증가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인구비례를 감안했을 때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 범죄율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율이 높은 이유 역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위치한 특성상 지역 내 거주 내국인의 범죄가 타지역 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이고 사회문화적인 현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직접적인 경험에 대한 의존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범죄에 대한 지각에서는 매스미디어를 통한 접촉이나 사람들과의 대인 커뮤니케이션 등 간접 경험에서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현상을 연구하는 분야 뿐만 아니라 언론학을 비롯한 미디어 연구 분야에서도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최근 이강형(2013)은 농촌지역 거주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범죄위험 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폈고, 이준웅과 장현미(2007)는 인터넷 사용이 현실 세계에 대한 위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위험 지각을 살핀 연구로 언론학 분야에서 외국인 범죄 보도를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반면 범죄학 분야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노성훈, 2013; 노성훈·조준택, 2014a; 노성훈·조준택, 2014b; 박윤환·장현석, 2013; 박정선·이성식, 2010 등)와 함께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노성훈, 2013; 노성훈·조준택, 2014a)에 관한 연구가 학문적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행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연구에서 미디어의 영향이 고려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범죄 현상의 경우 사람들의 직접 경험의 영향이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범죄에 대한 인식은 주로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분석에서 미디어의 영향은 핵심적인 요인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 요인과 미디어 요인을 함께 살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특히 미디어 요인을 담론적 미디어 요인과 대화적 미디어 요인으로 구분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사회적 수준의 위험지각과 개인적 수준의 위험지각으로 구분하여 미디어의 영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밝히고자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다

문화 인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위험지각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는지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II. 문헌 연구

1. 개인 수준 요인이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

개인의 인구·사회통계적 특성과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이의 관계는 대체로 ‘취약성 가설’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취약성 가설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범죄 피해 취약성을 중심으로 예측하는 가설로 범죄를 당했을 때 자기방어력이 낮으면서 범죄에 따른 피해 결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 또한 클 것으로 본다(노성훈·조준택, 2014b). 가설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남성 보다는 여성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클 것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는 경험적 연구 결과 역시 다수 존재하는데, 미국에서 수행된 조사(Schafer, Huebner, & Bynum, 2006: 290)에서는 여성이 남성 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조사(Davis & Dossetor, 2010: 4)에서는 노인층이 젊은층에 비해 범죄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에서는 남성에게 비해 여성이 더 큰 범죄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노성훈·조준택, 2014b; 조은경, 2003), 2009년도 한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박정선과 이성식(2010)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부적 관계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 및 소득 수준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에서도 국내·외의 결과가 다소 엇갈리고 있다. 영국 범죄 조사(British Crime Survey)를 바탕으로 한 연구(Brunton-Smith & Sturgis, 2011)에서는 교육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범죄를 더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한국범죄피해조사에 근거한 연구(박정선·이성식, 2010)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범죄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통계적 특성과 함께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 역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외국인 접촉 경험이 외국인 범죄 위험 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은 두 가지 상반된 가설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올포트(Allport, 1954)의 접촉이론(contact theory)에 기반한 관점이다. 이는 낯선 집단과의 직접 접촉과 상호작용이 이질적 집단에 대한 오해를 교정할 기회를 제공하고 편견을 줄여 줌으로써 두려움을 낮출 수 있다고 가정한다. 와그너 등(Wagner et al., 2003)은 서부 독일과 동부 독일 거주자들의 직접 접촉 경험이 종족적 편견(ethnic prejudice)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했는데, 종족간 접촉 경험의 확대가 종족에 대한 편견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펠란과 링크(Phelan & Link, 2004)는 정신질환자와 개인적 접촉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정신질환자를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통해 미루어 볼 때 외국인과의 개인적 접촉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반면 블래록(Blalock, 1967)의 집단위협이론(group threat theory)은 이와 반대되는 예측을 제시한다. 집단위협이론은 동질적 집단이 새로운 집단의 유입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심리적·사회적 기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접촉이론이 이질적인 집단 간 접촉이 상호 이해를 넓히고 편견을 해소할 수 있다고 예측하는 반면, 집단위협이론은 새로운 집단의 유입과 접촉 증대가 기존 다수 집단의 불안감을 높이고 두려움을 증가시킨다고 예측한다. 경험적 차원에서 킹과 휘락(King & Wheelock, 2007)은 흑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백인 거주자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범죄자에 대한 더 엄격하고 강력한 형벌을 요구하는 엄벌주의적 반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치리코스 외(Chiricos, McEntire, & Gertz, 2001)는 이웃에 히스패닉계나 흑인이 많이 거주한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객관적 지표로 확인되는 인종 구성이 아니라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인종 구성에 의해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집단위협이론을 반박하는 경험적 연구결과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예름(Hjerm, 2007)은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데이터를 사용하여 집단

위협이론을 검증하였는데, 실제 외국인 규모와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외국인 규모 모두 반이민(anti-immigrant)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도 노성훈(2013)이 집단위협이론에 근거하여 외국인의 증가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폈는데, 외국인이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많이 살고 있다는 인식은 범죄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높이기는 하였지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위협이론에서 도출한 가설의 일부만이 지지되었다.

그 외의 개인 수준 요인으로는 사람들과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강형(2013)은 2011년 농촌진흥청 농촌 생활 지표조사 자료를 활용해 농촌 지역 거주자들의 범죄에 대한 위험 인식을 분석하였는데, 농촌 지역 거주자 중 텔레비전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 보다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한 사람들이 자신의 범죄 위험 노출 가능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그리고 성용은과 유영재(2007)는 시민들의 개인적 특성과 범죄 두려움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남성 보다 여성이 평소 주변 사람들과 범죄사건에 관한 대화를 더 자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 관련 대화를 자주 할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이 확인되었다.

2. 미디어 요인이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

일찍이 리프만(Lippmann, 1922/2013: 28)은 실제 세계는 사람들이 직접 지각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복잡하여 매스미디어가 이를 단순화해서 사람들의 머리 속 세계에 대한 그림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는 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폭력이 수용자들의 현실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규명하고 이론화를 처음으로 시도한 문화계발이론(cultivation theory)의 바탕이 된다. 문화계발효과 이론은 매스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현실’은 실제 현실과 차이가 있으며, 매스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매스미디어가 재현하는 현실에 가까운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특히 텔레비전에서의 폭력 묘사에 관한 연구는 이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이론

에 입각해 미국의 텔레비전 폭력에 관한 대규모 내용 분석이라 할 수 있는 문화지표(cultural indicators) 연구를 시작으로 폭력 프로파일(violence profile)이라는 이름으로 연구결과가 매년 발간되었다(Weimann, 1999/2003: 109).

문화계발효과에 관한 검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미디어가 재현하는 현실이 실제 현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밝히는 부분이다. 최근 박과 동료들(Park, Holody, & Zhang, 2012: 487-488)은 2007년 한국계 이민자에 의해 발생한 버지니아 공대 총기 사건과 백인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콜럼바인 총기 사건에 관한 미국의 신문 보도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 신문들의 3분의 1 이상이 버지니아 공대 총기 사건을 다루면서 가해자의 인종 정보를 포함했으며, 가해자의 인종 정보를 부각시켜 특정한 인종 집단(ethnic group)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경향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신문들이 콜럼바인 총기 사건을 보도하며 사실상 인종 정보를 전혀 다루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국내에서는 임양준(2012: 419)이 한국거주 이주노동자에 관한 신문의 보도 경향을 분석하였는데, 신문사전에 등장하는 이주노동자의 이미지는 단순노동자(38.8%) 다음으로 범죄자(15.0%), 환자(15.0%), 시위자(8.1%)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신문들이 이주노동자에 대해 편향된 재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텔레비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뉴욕의 지역 방송 보도에 흑인 용의자가 살인사건의 74%, 절도사건의 84%, 폭력사건의 73%의 비율로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뉴욕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살인사건의 54%, 절도사건의 55%, 폭력사건의 49%가 흑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디어가 실제 통계 보다 훨씬 자주 흑인 범죄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는 텔레비전 범죄 보도에 인종적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Media Matters for America, 2015). 국내에서는 박지선과 박상조(2013)가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범죄 관련 언론보도 빈도와 실제 발생 건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살인사건은 공식 통계에서 뚜렷한 증가가 없었으나 관련 보도는 약 6.2배 증가하였고, 강도사건은 실제로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보도는 오히려 약 4.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외국인 범죄 보도와 실제 외국인 범죄 발생 빈도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문화계발효과 검증에서 두 번째 논점은 매스미디어가 재현한 현실이 수용자들의 세계관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점이다. 문화계발효과 연구를 주도한 거브너와 동료들(Gerbner & Gross, 1976; Gerbner et al., 1980)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텔레비전을 하루 4시간 이상 시청하는 중시청자(heavy-viewer)와 2시간 이하로 시청하는 경시청자(light-viewer) 집단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경시청자 집단 보다 중시청자 집단이 세계를 훨씬 비열하고 무서운 곳(mean world)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최근 노섭(Northup, 2010)은 문화계발이론에 기반한 실험연구를 통해 텔레비전 뉴스 이용이 많은 사람일수록 화면 속에 등장하는 흑인 용의자를 유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어 아렌트와 노섭(Arendt & Northup, 2015)은 316명의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지역뉴스 시청량이 흑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이 연구는 특히 무의식적 편견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심리 측정 도구인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 기법을 활용하였는데, 지역뉴스 시청량이 많은 집단은 화면에 흑인이 등장했을 때 긍정적 단어에 대한 반응시간은 느리고, 부정적 단어에 대한 반응시간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뉴스 시청량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흑인에 대한 태도 뿐만 아니라 흑인에 대한 무의식적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화계발이론의 주창자인 거브너와 그로스(Gerbner & Gross, 1976)는 문화계발 효과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메시지의 특수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텔레비전이 묘사하는 전반적인 상징 현실의 효과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텔레비전 총이용시간을 독립변수로 삼았다. 이론적 측면에서 문화계발효과는 텔레비전이 제시하는 ‘메시지의 일관성’과 수용자들의 ‘비선택적 시청’을 주요한 전제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문화계발이론은 텔레비전이 현실에 대한 편향된 이미지를 일관되게 구성하며, 시청자들이 텔레비전을 비선택적, 의례적, 습관적으로 시청한다고 가정한다(이준웅·장현미, 2007).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문화계발이론의 등장 직후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포터(Potter, 1986)는 시청자들이 텔레비전을 비선택적으로 시청하지는 않는다면 시청자의 인구·사회통계를 비롯한 개인적 특성에 따라 문화계발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포터와 장(Potter & Chang, 1990)은 텔레비전이 일관된 메시지와 이미지를 제시한다는 전제를 부정하며 시청자

들이 어떠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주로 시청하는지에 따라 문화계발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문화계발이론의 전개에 있어 미디어 내용이 수용자의 인지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호킨스와 핑그리(Hawkins & Pingree, 1982)는 문화계발효과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일차적 수준의 믿음에 미치는 효과와 그러한 믿음의 일반화를 통해 형성되는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인식인 이차적 수준의 믿음에 미치는 효과로 구분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머츠(Mutz, 1998/2000)는 문화계발효과가 수용자의 인지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를 더 정교화하여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은 주로 사회수준의 지각에서 발생한다는 비개인적 영향(impersonal influence) 가설을 정식화하였다.

머츠(Mutz, 1998/2000)가 비개인적 영향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선구자인 카츠와 라자스펠트(Katz & Lazarsfeld, 1955)의 개인적 영향(personal influence) 개념과 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카츠와 라자스펠트(Katz & Lazarsfeld, 1955; Lazarsfeld, Berelson, & Gaudet, 1968/2015)의 개인적 영향 가설은 매스미디어에서 얻은 정보는 여론 선도자(opinion leader)를 거치며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로 인해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가 있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머츠(Mutz, 1998/2000)는 비개인적 영향 가설을 통해 매스미디어와 대인적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은 차별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수준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매스미디어 고유의 효과를 강조하였다. 이 가설에 따르면 개인적 대화를 통한 범죄 뉴스 접촉은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범죄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각을 높이는 반면 매스미디어를 통한 범죄 보도 접촉은 사회적으로 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지각을 높인다고 예측할 수 있다. 구오 외(Guo et al., 2001)는 이 가설을 바탕으로 홍콩과 미국 매릴랜드 주에서 조사를 수행하여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농촌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이강형(2013)의 연구에서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할수록 개인 수준의 범죄 위험지각이 높아진다는 가설은 입증되었으나 텔레비전 시청이 많을수록 사회 수준의 범죄 위험지각이 높아진다는 가설은 검증되지 못하였다.

문화계발효과가 수용자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 중 ‘차별적

영향 가설'은 단순한 텔레비전 시청량 보다 텔레비전 시청의 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던 포터와 장(Potter & Chang, 1990)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콘텐츠의 유형과 장르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차별적 영향 가설(differential impact hypothesi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스나이더와 라우즈(Snyder & Rouse, 1995)는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장르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뉴스 프로그램과 달리 영화나 시트콤과 같은 오락 프로그램은 사회적 수준의 위험지각이 아니라 개인적 수준의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스테펠과 벨투이젠(Stapel & Velthuisen, 1996)은 매스미디어를 통한 접촉일지라도 자신과 관련성이 있는(self-relevant) 정보의 경우 개인 수준의 위험지각과 사회 수준의 위험지각을 모두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로는 범죄 위험지각 관련 연구는 아니지만 차동필(2010)과 좌보경 외(201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차동필(2010)은 2009년 발생한 신종플루에 대한 대학생들의 위험지각을 비개인적 영향가설과 차별적 영향가설의 관점에서 검증하였는데, 연구결과 비개인적 영향 가설은 지지되었으나, 차별적 영향 가설은 지지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발암물질 위험이슈를 통해 차별적 영향 가설을 검증한 좌보경 외(2013)의 연구에서는 발암물질 이슈에 대한 뉴스 미디어 노출은 개인적 위험 지각과 사회적 위험 지각을 모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오락적 미디어를 통한 발암물질 이슈 노출이 개인적 위험 지각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은 확인되지 않아 차별적 영향 가설이 지지되지 못하였다.

3.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서 개인수준 요인과 미디어 요인의 상호작용

인구·사회통계를 비롯한 개인수준 요인과 미디어 요인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피는 데서도 두 가지 상반된 예측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문화계발이론의 하위 가설로 제기된 공명효과 가설이다. 문화지표그룹은 시청자 유형에 따라 문화계발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비판을 수렴하며 폭력프로파일 11호(violence profile no.11; Gerbner et al., 1980)에서 공명(resonance) 개념을 도입한다. 공명효과란 텔레비전이 묘사하는 왜곡된 현실 이미지가 수용자의 기존지식

이나 직접경험과 유사할수록 메시지의 효과가 강화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개념이다(Bryant, et al., 2012). 이 개념의 도입으로 텔레비전이 재현하는 내용과 시청자들이 지각하는 현실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문화계발효과가 실제로 증폭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한 다양한 검증이 시도되었다.

공명효과 분석은 주로 ‘인지된 현실감’(perceived realism)을 중재변인으로 설정하여 검증 되어 왔다. 인지된 현실감이란 수용자들이 매스미디어 내용을 실제 현실과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리얼리티 데이트 프로그램(Ferris et al., 2007; 김미라, 2008), 음란물(Peter & Valkenburg, 2008) 등에서 인지된 현실감의 중재효과가 확인되었다. 최근 소와 나비(So & Nabi, 2013)는 인지된 현실감 대신 ‘인지된 사회적 거리’(perceived social distance) 개념을 적용하였는데, 시청자가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회적 거리가 가깝다고 느낄수록 개인적 수준의 위험 지각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여러 경험적 연구에서 공명효과의 일반적인 예측과 반대되는 결과도 자주 보고하고 있다. 예컨대 우와 도미니크(Woo & Dominick, 2001; 2003)는 TV 토크쇼 시청자 분석을 통해 일반적인 공명효과의 예측과는 반대로 토크쇼에서 논의되는 사안을 잘 알 때 보다 사안에 대해 잘 모르거나 명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문화계발효과가 더욱 증폭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롬머 외(Romer, Jamieson, & Aday, 2003)도 범죄보도 빈도가 높았던 해의 경우 범죄 발생률이 높은 대도시 지역 보다 범죄 발생률이 낮은 교외지역 거주자에게서 범죄뉴스 시청의 문화계발효과가 더 강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형진(2006) 역시 초기 문화지표 그룹의 공명효과에 관한 주장과는 달리 시청자들이 텔레비전 위험보도에 노출되었을 때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위험보다 잘 모르거나 경험하지 못했던 위험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직접 접촉의 효과를 강조하는 접촉 가설 역시 공명효과 가설과는 상반되는 예측을 제시한다. 낯선 집단과의 상호작용이 이질적 집단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을 줄여준다고 가정하는 접촉가설의 관점은 매스미디어에 의한 부정적 고정관념 역시 외국인과의 직접 접촉 경험을 통해 감소할 수 있다. 탠과 동료들(Tan, Fujioka & Lucht, 1997)은 소수 집단과 개인적 접촉이 없거나 부족하면 매스미디어에 의한 정보 왜곡

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후지오카(Fujioka, 1999)는 실험연구를 통해 흑인과 직접 접촉이 적은 경우 텔레비전 시트콤에 재현된 흑인의 이미지가 더욱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스트로와 트롭(Mastro & Tropp, 2004)은 흑인과 개인적 접촉이 많아질수록 텔레비전 시트콤이 재현하는 흑인의 부정적 이미지의 효과가 완화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 연구 중에는 정연구 외(2011)가 이주여성과의 개인적 접촉 정도에 따라 이주여성 관련 뉴스의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폈는데, 분석 결과 이주민 여성과 개인적 접촉이 많아질수록 이주민 관련 뉴스의 부정적 고정관념 형성 효과가 작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이주민과의 개인적 접촉이 미디어의 부정적 내용과 공명하여 부정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Ⅲ. 연구 문제의 설정

이 연구는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 요인과 미디어 요인을 살펴보고, 두 요인 사이의 상호작용 및 중재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앞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특성을 취약성 가설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 다소 상반되는 예측을 제시하고 있는 접촉이론과 집단위협이론을 통해 외국인과의 개인 접촉 경험이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하였다. 외국인 범죄 관련 대인 커뮤니케이션 역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수준 요인이라는 점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외국인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리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어떠한 개인 특성을 지닌 집단이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개인의 인구·사회적 배경이 되는 변인,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 사람들과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회귀식을 설정하여 각 변인들이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높은 변인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개인

수준의 위험지각과 사회 수준의 위험지각으로 구분하여 각 변인들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인구·사회통계 변인은 성별, 나이, 학력, 소득이고, 그 외에 개인의 정치성향 인식 등이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외국인 접촉 경험과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 변인도 함께 포함해서 분석한다. <연구문제 1>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개인수준 요인(인구·사회통계, 외국인 접촉,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은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미디어 요인이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주안을 둔다. 앞서 살펴보듯이 미디어에 의해 선별된 현실은 사람들의 현실 지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텔레비전이 재현하는 ‘폭력적이고 비열한 세상’이 수용자들의 현실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문화계발이론을 통해 이 문제를 접근하였다. 특히 외국인 범죄의 경우 직접 경험의 영향이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미디어의 사회적 현실구성에 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문화계발이론은 중요한 함의를 지닐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다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국내에서도 미디어가 외국인 범죄를 어떻게 재현하는지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가 수용자들의 외국인 범죄 인식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통적으로 텔레비전의 효과를 탐색하는 데 집중해왔던 문화계발이론과 연관 이론들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요인이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앞서 검토한 비개인적 영향 가설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와 관련하여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자신의 주변에서 외국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개인수준의 위험지각을 높이고, 매스커뮤니케이션은 사회적으로 외국인 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사회수준의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매스미디어의 성격과 대인 미디어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혼종적 미디어 양식(hybrid mode)인 소셜미디어(Levinson, 2009; 이재현, 2011)의 경우 어떻게 수용자들의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

치는지 명확한 예측을 제시하기 어렵다. 미디어의 내용적·장르적 특성, 그리고 개인과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는 차별적 영향 가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각각의 정보원천을 개인과 관련성이 높은 형태로 매개하는 특성이 있는 소셜미디어의 경우 개인적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적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역시 종래의 내용적·장르적 구분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탐색적으로 미디어를 ‘대화형 미디어’와 ‘담론형 미디어’로 재구분하고 이들 미디어가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담론형 미디어(diskursive medien)와 대화형 미디어(dialogische medien)의 구분은 플루서(Flusser, 1996/2001)의 구분을 차용한 것이다. 플루서(Flusser, 1996/2001)에 따르면 담론적 커뮤니케이션이란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여러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소통 행위로서 TV, 신문, 잡지, 영화 등의 매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화적 커뮤니케이션은 정보를 합성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는 활동으로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교류 행위인 인터넷 기사 댓글,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 블로그,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은 대화형 미디어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구분을 토대로 대화형 미디어가 수용자의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어떻게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위험지각’과 ‘개인적 위험지각’을 종속 변인으로 하는 각각의 회귀모형을 설정하여 담론형 미디어, 대화형 미디어, 그리고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각각의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2. 미디어 요인(담론형 미디어 접촉, 대화형 미디어 접촉)은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대면 대화의 효과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개인의 외국인 접촉 경험이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과 위험지각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개인의 선행 경험은 미디어의 효과를 증폭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중재변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공명효과 가설과 접촉 가설을 통해 앞서 설명하였다. <연구문제 3>에서는 외국인 접촉 경험의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각 유형별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량 변인과 외국인 접촉 경험 변인의 상호작용항을 생성시켜 위계적 회귀식에 투입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검

증하고자 한다. 세 번째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3. 개인의 외국인 접촉 경험은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과 위험지각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IV. 연구방법

1. 표본 선정 및 자료수집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은 전문조사회사 오픈서베이(www.opensurvey.co.kr)의 패널 서베이 방식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오픈서베이가 보유한 총 35만 명의 패널 중 조사대상자를 성별·연령별로 비례 할당하여 컴퓨터로 무작위 추출한 후 모바일 설문지를 보내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5월 29일 하루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전국 성인 남녀 300명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과 여성이 각 150명(50.0%)으로 동일하였고, 연령 분포는 20대 76명(25.3%), 30대 74명(24.7%), 40대 76명(25.3%), 50대 74명(24.7%)으로 평균 연령은 39.04세($SD=11.04$)였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서울이 110명(36.7%), 경기 78명(26.0%), 광역시 76명(25.3%), 기타 지역 36명(12.0%)이었다.

응답자의 학력 분포는 초등학교졸 1명(0.3%), 중학교졸 2명(0.7%), 고등학교졸 57명(19.0%),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211명(70.3%),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29명(9.7%)이었다.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 소득 분포는 100만원 미만 6명(2.0%), 100~200만원 미만 26명(8.7%), 200~300만원 미만 77명(25.7%), 300~400만원 미만 47명(15.7%), 400~500만원 미만 57명(19.0%), 500~600만원 미만 33명(11.0%), 600~700만원 미만 22명(7.3%), 700만원 이상 32명(10.7%)이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 인식은 보수와 진보를 약 극단으로 하는 5점 척도(1=보수, 5=진보)로 측정하였으며 평균은 2.87($SD=1.003$)로 보수적 성향이 다소 우세하였다.

2. 주요 변인의 측정

이 연구에서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측정한 주요변인은 다음과 같다. 독립변인은 외국인 범죄 관련 미디어 접촉량과 대인 커뮤니케이션량, 그리고 외국인 접촉 경험이다. 종속변인은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을 개인적 위험지각과 사회적 위험지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가. 외국인 범죄 관련 미디어 접촉

외국인 범죄 관련 미디어 접촉량은 담론형 미디어 접촉량과 대화형 미디어 접촉량으로 구분하였다. 최초 설문지에서는 담론형 미디어와 대화형 미디어의 구분 없이 11개의 매체를 제시하였고, 설문지 수집 후 요인 분석을 통해 2개의 요인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요인에는 인터넷 기사 댓글,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인터넷 커뮤니티 또는 카페,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톡스토리가 포함되었고, 두 번째 요인에는 신문·잡지 기사, 시사프로그램 또는 생활정보프로그램, TV 뉴스, 영화, 드라마가 포함되었다. 각 요인에 포함된 매체들의 특성을 근거로 설문지 설계 단계에서 참고하였던 플루서(Flusser, 1996/2001)의 ‘대화형 미디어’와 ‘담론형 미디어’ 구분을 적용하였다. 플루서(Flusser, 1996/2001)에 따르면 담론적 커뮤니케이션이란 사람들이 정보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여러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소통 행위를 의미하는 반면 대화적 커뮤니케이션은 정보를 합성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활동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교류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TV, 신문, 잡지, 영화 등을 담론형 미디어로 구분하고, 인터넷 기사 댓글,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 블로그, 소셜미디어(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는 대화형 미디어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다.

담론형 미디어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량은 “당신은 아래의 매체를 통해 얼마나 자주 외국인 범죄 관련 내용을 접해 보셨습니까?”라는 질문에 a) TV 뉴스, b) 시사 프로그램 또는 생활정보 프로그램, c) TV 드라마, d) 신문 또는 잡지 기사, e) 영화 문항을 제시하였다. 응답은 5점 척도(1=거의 없음, 2=별로 없음, 3=가끔, 4=자주, 5=매우 자주)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매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크린 질문을 통해 분석에서 제외시켰으며, 문항간 신뢰도를 측정한 Cronbach's α 값은 .816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형 미디어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은 “당신은 아래의 인터넷 서비스나 SNS를 통해 얼마나 자주 외국인 범죄 관련 내용을 접해 보셨습니까?”라는 질문에 a) 인터넷 기사 댓글, b)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 c) 블로그, d) 트위터, e) 페이스북, f)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톡스토리 문항을 제시하였다. 응답은 담론형 미디어와 동일한 방식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간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16로 높았다.

나. 외국인 범죄 관련 대인 커뮤니케이션

외국인 범죄 관련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정도는 라자스펠트와 동료들(Lazarsfeld, Berelson, & Gaudet, 1968/2015)이 대인 커뮤니케이션량 측정에 사용한 변수를 참고하여 “당신은 아래의 사람들로 부터 얼마나 자주 외국인 범죄 관련 이야기를 듣거나 해 보셨습니까?”라는 질문에 a) 친구나 이웃, b) 가족이나 친척, c) 업무상 아는 사람이나 동료 문항을 제시하였다. 응답은 5점 척도(1=거의 없음, 2=별로 없음, 3=가끔, 4=자주, 5=매우 자주)로 측정하였다. 측정문항 간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85로 양호하였다.

다. 외국인 접촉 경험

현실에서의 외국인 접촉 경험에 관한 문항은 2012년 여성가족부의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연구’(안상수 외, 2012)에 사용된 문항을 참고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외국인 목적, 외국인과의 대화, 외국인과의 접촉, 해외여행, 해외체류 경험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나는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많이 보는 편이다”, “나는 외국인과 대화를 해본 경험이 많다”, “나는 외국인과 자주 접촉하는 편이다”, “나는 해외여행을 많이 한 편이다”, “나는 해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다” 등의 진술문에 대해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측정문항 간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783으로 양호하였다.

라. 외국인 범죄 위험 지각 변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fear of crime)과 ‘지각된 범죄 위험’(perceived risk of crime)으로 개념을 구분할 수가 있다. 전자는 특정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 막연하게 느끼는 불안감을 의미하고, 후자는 구체적인 범죄유형을 염두에 두고 범죄의 발생위험성을 고려한 범죄 위험 지각을 의미한다(Rountree, 1998; 노성훈·조준택, 2014b). 이 연구에서는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위험지각을 측정하였다. 범죄 위험지각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문화계발효과이론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폭행, 강도, 강간, 살인의 발생 가능성을 묻는 질문 문항을 활용하였다(Gerbner & Gross, 1976; 이준웅·장현미, 2007). 위험지각은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개인적 위험 지각과 사회적 위험 지각으로 구분(Mutz, 1998/2000)하였으며, 폭행, 강도, 강간, 살인 4개의 문항에 대하여 사회적 수준에서의 발생 가능성을 묻는 질문(예, “우리 사회에 외국인에 의한 ○○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과 개인적 수준에서의 발생 가능성을 묻는 질문(예, “내가 아는 사람이 외국인에 의해 ○○범죄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을 각각 구성하여 5점 척도(1=전혀그렇지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측정 문항들 간의 내적일치도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사회적 위험지각 .935, 개인적 위험지각 .964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 분석 방법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의 범주를 유형화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외국인 범죄에 대한 위험지각과 다문화 수용성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에 독립 변인들이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 $p<.01$, $p<.001$ 에서 검증하였고, 통계처리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V. 연구 결과

1. 〈연구문제 1〉에 대한 결과

〈표 1〉 개인수준 요인이 외국인 범죄 위험 지각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표준화 베타 계수	t
사회적 위험지각 (Adjusted $R^2=.211$)	성 별	.030	.571
	나 이	-.004	-.069
	학 력	-.061	-1.074
	소 득	.040	.734
	정치 성향	-.013	-.241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	.470***	8.750
	외국인 접촉	.033	.577
개인적 위험지각 (Adjusted $R^2=.275$)	성 별	-.025	-.490
	나 이	-.082	-1.523
	학 력	.057	1.048
	소 득	.129*	2.449
	정치 성향	-.014	-.277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	.503***	9.767
	외국인 접촉	.006	.117

주: *** $P<.001$, ** $P<.01$, * $P<.05$

첫 번째 연구문제인 개인수준 요인이 외국인 범죄 위험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기 위해 ‘사회적 위험지각’과 ‘개인적 위험지각’을 종속 변인으로 하는 각각의 회귀모
형을 설정하고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통계학적 변인과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 변인,
외국인 접촉 변인을 모형에 투입하였다. 성별은 남성을 기준변수로 하는 더미변수(남
성=0, 여성=1)로 처리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위험지각을 종
속 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df=7, 292)=12.408, p<.001$),
개인수준 요인은 사회적 위험지각의 약 21.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djusted
 $R^2=.211$).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해 본 결과 회귀식에 포함된 변인들
의 공차한계 값이 모두 .1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IF < 10). 각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에서는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를 많이 할수록 사회적 위험지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개인적 위험지각을 종속 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df=7, 292]=17.217, p<.001), 독립변인들의 변량은 종속변인의 약 27.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djusted R²=.275). 각 변인들의 공선성 통계량을 살핀 결과 공차한계 값이 모두 .10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관찰되지 않았다(VIF < 10). 각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소득과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적 위험지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가 많아질수록 개인적 위험지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2. <연구문제 2>, <연구문제 3>에 대한 결과

〈표 2〉 미디어 요인이 외국인 범죄 위험 지각에 미치는 영향

단계	독립변인	사회적 위험지각			개인적 위험지각		
		R ² (ΔR ²)	표준화계수 β	유의확률	R ² (ΔR ²)	표준화계수 β	유의확률
1	성 별	.032	-.039	.554	.070	-.093	.151
	나 이		-.014	.842		-.129	.057
	학 력		-.123	.078		.007	.922
	소 득		.008	.911		.107	.107
	정치성향		.050	.445		.044	.493
	외국인 접촉경험		.145*	.034		.137*	.040
2	담론형 매체 접촉	.347 (.315)	.414***	.000	.393 (.322)	.388***	.000
	대화형 매체 접촉		.033	.700		.026	.754
	대인커뮤니케이션		.287***	.000		.317***	.000
3	담론형 매체 접촉 × 외국인접촉경험	.348 (.002)	.335	.470	.401 (.008)	.307	.489
	대화형 매체 접촉 × 외국인접촉경험		.055	.902		.419	.325
	대인커뮤니케이션 × 외국인접촉경험		-.124	.758		.546	.158

주: ***P<.001, **P<.01, *P<.05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의 해결을 위해 ‘사회적 위험지각’과 ‘개인적 위험지각’을 종속 변인으로 하는 각각의 회귀모형을 설정하고 3단계에 걸쳐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는 사회적 위험지각과 개인적 위험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에 응답자의 인구·사회통계 변인과 외국인 접촉경험 변인을 투입하였다. 각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사회적 위험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F(df=6, 240)=1.313, p>.05$), 개인적 위험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만 유의하였다($F(df=6, 240)=3.031, p<.01$). 개인적 위험 지각 모형에서 투입된 독립 변인들은 종속변인의 약 7.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70$). 투입된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에서는 외국인 접촉 경험 만이 종속 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37, p<.05$). 1단계 분석 결과 인구·사회통계 변인과 외국인 접촉경험의 설명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접촉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외국인 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을 높이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단계에서는 미디어 요인이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회귀 모형에 담론형 미디어 접촉, 대화형 미디어 접촉, 대인 커뮤니케이션 변인을 투입하였다. 미디어 변인과 함께 대인 커뮤니케이션 변인을 투입한 이유는 비개인적 영향 가설과 함께 각 미디어 변인의 영향력을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과 비교하기 위함이었다. 각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사회적 위험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F(df=9, 237)=13.977, p<.001$), 개인적 위험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F(df=9, 237)=17.026, p<.001$) 모두 유의하였다. 2단계에 투입된 독립 변인들의 사회적 위험지각에 대한 설명력은 31.5%($\Delta R^2=.315$), 개인적 위험지각에 대한 설명력은 32.2%($\Delta R^2=.322$)로 전체 모형의 R^2 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즉 외국인 범죄 관련 미디어 접촉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에서는 담론형 미디어 접촉 변인과 대인 커뮤니케이션 변인이 두 회귀모형에서 모두 유의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대화형 미디어 접촉 변인은 두 모형에서 모두 유의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범죄 관련 담론형 미디어 접촉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질

수록 사회적 위험지각과 개인적 위험지각이 모두 높아졌다.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위험지각 모형에서 담론형 미디어 접촉의 영향력($\beta=.414$, $p<.001$)이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beta=.287$, $p<.001$) 보다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개인적 위험지각 모형에서도 담론형 매체 접촉의 영향력($\beta=.388$, $p<.001$)이 대면 대화의 영향력($\beta=.317$, $p<.001$)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서 주지할 점은 사회적 위험지각 모형에서 담론형 미디어 접촉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담론형 미디어는 사회적 위험지각과 개인적 위험지각에 모두 대인 커뮤니케이션 보다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사회적 위험지각에서 그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매스미디어의 영향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이 사회적 수준과 개인적 수준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난다(Mutz, 1998/2000)는 비개인적 영향 가설을 완전히 지지해주지는 못하지만, 매스미디어가 수용자들의 사회 수준의 지각구조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세 번째 연구문제인 현실에서의 외국인 접촉 경험이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과 위험지각 사이의 관계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피기 위해 회귀분석 2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인에 외국인 접촉 경험 변인을 곁한 상호작용항을 생성시켜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각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사회적 위험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F[df=12, 234]=10.429$, $p<.001$), 개인적 위험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F[df=12, 234]=13.044$, $p<.001$) 모두 유의하였다.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사회적 위험지각의 0.2%($\Delta R^2=.002$)와 개인적 위험지각의 0.8%($\Delta R^2=.008$)의 매우 약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들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에서도 두 모형 모두 유의한 변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즉 개인의 외국인 접촉 경험이 미디어 접촉이나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중재 변인의 역할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접촉 경험이 미디어 접촉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특별히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Ⅵ. 결론 및 논의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는 개인수준 요인과 미디어 요인이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는 것을 주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사회적 수준의 위험지각과 개인적 수준의 위험지각으로 구분한 후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을 설정하여 각 요인들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살폈다. 그리고 개인수준 요인 중 외국인 접촉 경험을 중재변인으로 설정하여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과 수용자들의 위험지각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탐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와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문제 1>로 설정한 개인수준 요인이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결과 인구·사회통계 변인 중 소득만이 개인적 위험지각에 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그 외의 변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국내 조사에 따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노성훈·조준택, 2014b; 조은경, 2003),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김은경 외, 2014), 연령이 낮을수록(박정선·이성식, 2010)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외국인 범죄에 대한 개인적 위험지각이 다소 높아진다는 사실만 확인되었다. 그러나 개인수준 요인과 미디어 요인의 영향을 함께 살피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소득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만으로 선행 연구 검토에서 논의한 취약성 가설을 특별히 지지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개인의 외국인 접촉 경험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위험지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쟁적 가설인 접촉가설이나 집단위협가설을 특별히 지지할 수 있는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수준 요인 중에서는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만이 개인적 위험지각과 사회적 위험지각에서 뚜렷한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를 많이 할수록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외국인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각이 높아

졌으며, 사회적으로 외국인 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지각도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 인구·사회통계적 배경 변인 보다는 주변사람들과의 대화와 같은 관계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로 제시한 미디어 요인이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위험지각의 31.5%, 개인적 위험지각의 32.2%가 미디어 접촉 변인과 대인 커뮤니케이션 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있어 미디어 접촉과 대화의 영향력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대화형 미디어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기사 댓글,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 블로그,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포함하는 대화형 미디어는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대화형 미디어의 영향력이 관찰되지 않은 것은 이 연구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의 영향력은 대학생 집단을 비롯한 젊은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차동필, 2010)을 감안할 때 인터넷 사용이 많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화형 미디어의 영향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인터넷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의 발전으로 외국인 범죄 관련 소식을 접촉하게 되는 경로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고, 이러한 방식의 접촉은 다양한 상호작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대화형 미디어에 관한 학술적 관심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있어 TV, 신문, 잡지, 영화 등을 포함하는 담론형 미디어의 영향력이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영향 가설을 주창하였던 카츠와 라자스펠트(Katz & Lazarsfeld, 1955)는 매스미디어의 영향이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경유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은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위험지각과 개인적 위험지각 모두 담론형 미디어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개인적 영향 가설을 정식화한 머츠(Mutz, 1998/2000)는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개인이 직접 경험하기 힘든 영역에서 더 잘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외국인 범죄와 같이 간접경험이 중요한 영역에서 매스

미디어의 영향력이 더 뚜렷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담론형 미디어와 대인 커뮤니케이션 모두 사회적 위험지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담론형 미디어와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차이는 사회적 위험지각의 영역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개인적 영향 가설에서 예측하듯 매스미디어가 대인 커뮤니케이션 보다 사회수준의 위험지각에 더 두드러지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머츠(Mutz, 1998/2000)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개인적이고 가시적 영역의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개인적 수준의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매스미디어는 개인의 가시적 영역을 넘어서는 대규모 집합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사회적 수준의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매스미디어가 대인 커뮤니케이션 보다 사회적 수준의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비개인적 영향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에서는 외국인 접촉 경험이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과 위험지각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폈다. <연구문제 3>의 해결을 위해 외국인 접촉 경험의 중재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상호작용항을 생성시켜 회귀모형에 투입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수용자의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외국인 접촉 경험의 중재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의 경쟁적 가설인 공명 가설과 접촉 가설을 지지할 만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외국인 접촉 경험이 미디어 접촉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특별히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의해 발생한 강력범죄가 언론을 통해 자극적인 방식으로 자주 보도가 되면서 외국인 범죄가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외국인 범죄 두려움에 대한 학술적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최근 범죄학 분야에서는 외국인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환경적 특성에 관한 논의(노성훈, 2013; 노성훈·조준택, 2014a)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미디어의 영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외국인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 요인과 미디어 요인

의 영향을 함께 살핍으로써 언론학과 범죄학 사이의 연구 공백을 채우고자 하였다. 외국인 범죄 두려움에 관한 연구에 있어 미디어 요인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는 범죄 현상의 경우 사람들의 직접 경험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주로 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정보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미디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지는 영역인 외국인 범죄 이슈를 대상으로 미디어가 수용자의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매스미디어가 수용자의 사회적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외국인 범죄 뉴스를 자주 접촉할수록 사회적으로 외국인 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머릿속 그림이 강하게 형성되고 이러한 머릿속 그림은 수용자들의 다문화 수용성과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역으로 미디어의 바람직한 역할과 활용을 통해 외국인과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시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및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Ⅵ.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를 밝히고,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가 많아질수록 범죄에 대한 위험지각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지만, 역으로 범죄에 대한 위험지각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가 많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이 연구의 결과 만으로는 독립변인인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량이 종속변인인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반대로 종속변인이 독립변인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따라서 해석 상의 주의가 필요하며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엄밀한 검증 모형에 기반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전문조사회사의 35만의 패널 중 조사대상자를 컴퓨터로 무작위 추출한 후 설문을 실시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부족한 표본수의 문제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는 전수 집단에 대한 이해 보다는 이론의 검증과 발전에 주

안을 두는 학술연구의 특성 상 고려될 수 밖에 없는 경제적·시간적 비용과 관련한 현실적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서베이 자료에 기반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변인 측정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속 변인인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을 사회수준의 지각과 개인수준의 지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개인수준 위험지각의 측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개인수준의 위험지각을 살피기 위해 아는 사람이 외국인 범죄에 당할 가능성을 문항에 포함한 이유는 개인 영역과 사회 영역의 구분에 있어 실제 생활에서 사적으로 접촉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 개인수준의 위험지각 측정에 있어 응답자 본인의 범죄피해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개인의 영역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한정하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후속연구에서는 개인 영역과 사회 영역의 구분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측정 문항의 사용에 있어서도 보다 엄밀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수용자의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응답자의 실제 범죄피해 경험이나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위험지각 등의 변인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변인들은 특히 개인 수준 요인이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핌에 있어 유의한 영향력을 지닐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이 연구는 개인 수준 요인 보다는 미디어 요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진 측면이 있다. 그리고 조사 기간을 전후하여 발생한 외국인 범죄 사건이 응답자들의 답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사 시점에 발생한 외국인 범죄 사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외국인 범죄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시기에 조사를 수행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 시점에 외국인 범죄 관련 미디어 보도가 있었는지, 응답자가 이를 접했는지 여부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연구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 연구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작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위험지각

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외국인 범죄에 대한 위험 지각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진구, 2012. “한국사회의 반다문화 담론 고찰: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2: 5-34.
- 김미라, 2008. “리얼리티 데이트 프로그램 시청이 데이트와 이성관계에 대한 시청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2.2: 353-377.
- 김은경·황지태·황의갑·노성훈, 2014.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노성훈, 2013. “외국인의 증가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집단위협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4권 3호, 151-184.
- 노성훈·조준택, 2014a. “왜 이웃의 외국인은 범죄두려움을 불러일으킬까?: 외국인 근접성 인식이 범죄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8.2: 281-321.
- 노성훈·조준택, 2014b. “지역사회의 범죄, 외국인,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수준 분석”. 형사정책연구, 25.4: 445-478.
- 박윤환·장현석, 2013. “지역 수준 범죄피해 두려움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공식범죄통계, 무질서, 집합적 효율성,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43: 59-88.
- 박정선·이성식, 2010. “범죄두려움에 관한 다수준적 접근: 주요 모델들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21.3: 173-203.
- 박지선·박상조, 2013. “언론의 범죄 관련 보도가 대중의 범죄 발생 인식에 미치는 영향”. 경찰학논총, 8.1: 295-316.
- 성용은·유영재, 2007. “시민의 개인적 특성과 범죄두려움 관계 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4.14: 261-283.
- 아산정책연구원, 2014a. 닫힌 대한민국: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과 정책. 아산정책연구원.
- 아산정책연구원, 2014b. 한국인의 이민자 인식. 아산정책연구원.
- 안상수·민무숙·김이선·이명진·김금미, 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오영삼·노은영, 2014.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서울시민의 다문화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용형태별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5.1: 187-209.
- 우형진, 2006. “문화계발이론의 ‘공명효과’(resonance effect)에 대한 재고찰: 위험인식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6: 254-276.
- 윤인진·송영호,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23.1: 143-192.
- 이강형, 2013. “농촌지역민들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이용이 범죄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13.3: 361-386.
- 이재현, 2011. 컨버전스 시대, 다중 미디어 이용 연구의 향후 과제. 이재현 엮음, 컨버전스와 다중 미디어 이용, 1-17,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준웅·장현미, 2007. “인터넷 이용이 현실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문화계발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51.2: 363-391.
- 임도경·김창숙, 2011.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및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거리감, 외국인 이미지, 한국인 인정조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9.1: 5-34.
- 임양준, 2012. “한국거주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문의 보도 경향과 인식연구”. 언론과학연구, 12.4: 419-456.
- 정연구·송현주·윤탈일·심훈, 2011. “뉴스 미디어의 결혼이주여성 보도가 수용자의 부정적 고정관념과 다문화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5.2: 405-427.
- 조은경, 2003.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9.1: 1-21.
- 좌보경·윤문영·백혜진, 2013. “미디어, 지각된 위험 특성, 위험 인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 발암물질 위험 이슈를 중심으로”. 홍보학 연구, 17.4: 72-109.
- 차동필, 2010. “건강 관련 위험에 대한 매스 커뮤니케이션, 대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다차원 건강통제소재가 공중의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 인문연구, 58: 647-674.

최영신·강석진·김미선·김일수, 2012.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국외문헌]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Perseus Books.
- Arendt, F., & Northup, T. (2015). Effects of long-term exposure to news stereotypes on implicit and explicit attitud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9: 2370-2390.
- Blalock, H. M. (1967). *Toward a theory of minority-group relations*. New York: Capricorn Books.
- Brunton-Smith, I., & Sturgis, P. (2011). Do neighborhoods generate fear of crime? An empirical test using the British Crime Survey. *Criminology*, 49.2: 331-369.
- Bryant, J., Thompson, S., & Finklea, B. W. (2012). *Fundamentals of media effects*. Waveland Press.
- Chiricos, T., McEntire, R., & Gertz, M. (2001). Perceived racial and ethnic composition of neighborhood and perceived risk of crime. *Social Problems*, 48.3: 322-340.
- Davis, B., & Dossetor, K. (2010). (Mis)perceptions of crime in Australia. *Trends & Issues in Crime and Criminal Justice*, 396: 1-6.
- Ferris, A. L., Smith, S. W., Greenberg, B. S., & Smith, S. L. (2007). The content of reality dating shows and viewer perceptions of dating. *Journal of Communication*, 57.3: 490-510.
- Flusser, V. (1996). *Kommunikologie*. 김성재 역 (2001). 『코뮤니콜로지: 코드를 통해 본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와 이론 및 철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Fujioka, Y. (1999). Television portrayals and African-American stereotypes: Examination of television effects when direct contact is lacking.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6.1: 52-75.

- Gerbner, G., & Gross, L. (1976). Living with television: The violence profile. *Journal of communication*, 26.2: 172-194.
- Gerbner, G., Gross, L., Morgan, M., & Signorielli, N. (1980). The “mainstreaming” of America: Violence profile no. 11. *Journal of communication*, 30.3: 10-29.
- Guo, Z., Zhu, J. J., & Chen, H. (2001). Mediated reality bites: Comparing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 as sources of perceptions across two communities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3.4: 398-418.
- Hawkins, R. P., & Pingree, S. (1982). Television influence on constructions of social reality. In D. Pearl, L. Bouthilet, & J. Lazar(Eds.), *Television and Behavior: Ten Year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mplications for the Eighties*(Vol. 2, pp. 224-247). New York: Guilford Press.
- Hjerm, M. (2007). Do numbers really count? Group threat theory revisited.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3.8: 1253-1275.
- Katz, E. & Lazarsfeld, P. F. (1955). *Personal influence: The part played by people in the flow of mass communications*. New York: The Free Press.
- King, R. D., & Wheelock, D. (2007). Group threat and social control: Race, perceptions of minorities and the desire to punish. *Social Forces*, 85.3: 1255-1280.
- Lazarsfeld, P. F., Berelson, B., & Gaudet, H. (1968). *The people's choice: how the voter makes up his mind in a presidential campaign*. 백영민 역 (2015). 『국민의 선택: 대통령 선거 캠페인 기간에 유권자는 지지 후보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Levinson, P. (2009). *New new media*. Boston: Allyn & Bacon.
- Lippmann, W. (1922). *Public opinion*. 이동근 역 (2013). 『여론』. 서울: 아카넷.
- Mastro, D. E. & Tropp, L. R. (2004). The effects of interracial contact, attitudes, and stereotypical portrayals on evaluations of black television sitcom characters.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21.2: 119-129.

- Mutz, D. C. (1998). *Impersonal influence: How perceptions of mass collectives affect political attitudes*. 양승찬 역 (2000). 『미디어 정치 효과: 비개인적 영향력』. 서울: 한나래.
- Northup, T. (2010). Is everyone a little bit racist? Exploring cultivation using implicit and explicit measures. *Southwestern Mass Communication Journal*, 26.1: 29-41.
- Park, S. Y., Holody, K. J., & Zhang, X. (2012). Race in media coverage of school shootings a parallel application of framing theory and attribute agenda setting.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9.3: 475-494.
- Peter, J., & Valkenburg, P. M. (2008). Adolescents' exposure to sexually explicit internet material and sexual preoccupation: A three-wave panel study. *Media Psychology*, 11.2: 207-234.
- Phelan, J. C., & Link, B. G. (2004). Fear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es: The role of personal and impersonal contact and exposure to threat or harm.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5.1: 68-80.
- Potter, W. J. (1986). Perceived reality and the cultivation hypothesi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30.2: 159-174.
- Potter, W. J., & Chang, I. C. (1990). Television exposure measures and the cultivation hypothesi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34.3: 313-333.
- Romer, D., Jamieson, K. H., & Aday, S. (2003). Television news and the cultivation of fear of crime. *Journal of Communication*, 53.1: 88-104.
- Rountree, P. W. (1998). A reexamination of the crime-fear linkag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3: 341-372.
- Schafer, J. A., Huebner, B. M., & Bynum, T. S. (2006). Fear of crime and criminal victimization: Gender-based contrast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4.3: 285-301.
- Snyder, L. B., & Rouse, R. A. (1995). The media can have more than an imper-

- sonal impact: The case of AIDS risk perceptions and behavior. *Health Communication*, 7.2: 125-145.
- So, J., & Nabi, R. (2013). Reduction of perceived social distance as an explanation for media's influence on personal risk perceptions: A test of the risk convergence model.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9.3: 317-338.
- Stapel, D. A., & Velthuijsen, A. S. (1996). Just as if it happened to me: The impact of vivid and self-relevant information on risk judgment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5.1: 102-119.
- Tan, A., Fujioka, Y., & Lucht, N. (1997). Native American stereotypes, TV Portrayals, and personal contact.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4(2), 265~284.
- Wagner, U., Van Dick, R., Pettigrew, T. F., & Christ, O. (2003). Ethnic prejudice in East and West Germany: The explanatory power of intergroup contact.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6.1: 22-36.
- Weimann, G. (1999). *Communicating unreality: Modern media and the reconstruction of reality*. 김용호 역 (2003). 『매체의 현실 구성론: 현대 미디어와 현실의 재구성』.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Woo, H. J., & Dominick, J. R. (2001). Daytime television talk shows and the cultivation effect among US and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5.4: 598-614.
- Woo, H. J., & Dominick, J. R. (2003). Acculturation, cultivation, and daytime TV talk show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0.1: 109-127.

[인터넷 자료]

- Media Matters for America, 2015. <http://mediamatters.org/research/2015/03/23/report-new-york-city-television-stations-contin/202553> Accessed 24 Sept 2015.

The influence of audiences' exposure to foreigners' crime news on their perceived risk

Heo Yunchool* · Im Yungho**

Fear of crime by foreigners is emerging as one of the factors militating against the public perception of multiculturalism.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both personal-level and media-related factors influence the audience's fear of crime by foreigners. Also, the research interests include how especially experience of contact with foreigners, among personal-level factors, mediates the relation between media-related factors and perceived risk. Based on a conceptual distinction between perceived risks on social and personal levels, this research has attempted to elaborate the influence of media on the fear of crime. As a result, among personal-level variables, only conversation on foreign crime prov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RQ 1). Also, media exposure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were highly influential on the perceived risk of foreign crimes. In particular, the impact of exposure to 'discursive media' among the audience was more conspicuous on their perceived risk on a social level(RQ 2). The moderating effect of experience of contact with foreigners was insignificant. In other words, experience of contact with foreigners hardly increases or diminishes the influence of media exposure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on the perceived risk(RQ 3). Based on the findings, both theoretical and policy-related implications were discussed.

* Doctoral Candidate, Dept. Communi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 Full Professor, Dept. Communi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 Keyword: crime by foreigners, fear of crime, cultivation effect, impersonal influence, multiculturalism